

2020년 몽골 주요 이슈

1. 가축 수 증가

- 몽골국에서는 매년 가축 통계를 내는데 2019년도 말(추정치) 가축 수는 7,094만 9,900두로 집계되었다. 2019년에는 5종 가축 모두 두수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염소 7.8%(210만 두), 양 5.6%(170만 두), 소 8.5%(37만 800두), 말 8.5%(27만 3,700두), 낙타 2.8%(1만 2,700두)가 각각 늘어났다. 2018년도 가축 수가 6,646만 두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대략 450만 두가 늘어난 셈이다.

<2000년 이후 가축 증가 추이>

단위: 1000두

연도/ 가축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낙타	322	254	269	280	260	321	349	368	401	434	459
말	2,660	2,029	1,920	2,112	2,239	2,619	2,995	3,295	3,635	3,939	3,940
소	3,097	1,963	2,176	2,339	2,425	2,909	3,413	3,780	4,080	4,388	4,380
양	13,876	12,884	14,480	15,668	16,990	20,066	23,214	24,943	27,856	30,108	30,554
염소	10,269	13,267	13,883	15,934	18,347	19,227	22,008	23,592	25,574	27,346	27,124
합계	30,227	30,398	32,729	36,335	40,263	45,144	51,982	55,979	61,549	66,219	66,460

출처: 몽골 통계국 자료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 가축 두수는 증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몽골국의 목초지는 대략 1억 1,100만 헥타르 정도다. 해당 분야 연구에 따르면 이는 양으로 치면 약 8460만 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몽골국의 모든 가축을 양으로 계산하면 1억 1,100만 두이기 때문에 계산상 2,500두 정도가 많다. 현재의 가축 수보다 1/3 이상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적인 기후온난화, 무분분별한 광산 개발과 함께 미축 두수 증가, 특히 염소 두수 증가가 원인이다.

*참고자료

<https://www.montsame.mn/mn/read/212264>, Малын тоо, толгойн 30 жилийн өсөлт(2020.01.10.)

<https://news.mn/r/2227721/#live-news-3>, Чуулган: Бэлчээрийн даац 25 сая толгойгоор хэтэрсэн(2019.11.22.)

2. 연금대출 탕감, 포퓰리즘의 부활

- 2019년 말 바트툴가(Kh. Battulga) 몽골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사에서 “국가안보회의” 결정 사항(1회의 연금대출금탕감)을 발표하여 논란을 불러왔고 그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현재 몽골국에는 연금 수령자가 40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23만 명 정도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연금대출금탕감 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연금대출금 600만 투르릭를 1회 국가가 탕감해 주고 대출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1백 만 투르릭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말 현재 몽골의 외채는 297억 달러인데 이중 상당 부분을 2020년과 2021년-2024년에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지금부터 외환보유고를 늘려야한다고 충고했으며, 특히 IMF는 몽골 정부가 약속을 협약을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 연금대출 탕감안은 2019년 중순에 대통령(민주당), 총리(인민당), 국회의장(인민당)이 참가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물론 세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당은 나르지만 양측이 6월에 있을 총선과 다음 해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참고자료

<https://ikon.mn/n/1rmr>, Тэтгэврийн зээлийг тэглэж байгаа нь 2017 онд байгуулсан гэрээгээ зөрчиж байна гэж ОУВС Үзэв(2020.01.10.)

<https://news.mn/r/2248052/>, БАЙР СУУРЬ: Монгол Улс тун хэцүү байдалд орно (2020.01.13.)

<https://news.mn/r/2252604/>, Популист шийдвэр ийм л аюултай(2010.01.24.)

<https://www.montsame.mn/mn/read/214989>, Зээлтэй ахмадуудад нийт 46 тэрбум төгрөг буцаан олгожээ(2020.02.04.)

3. 금년 상반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총회(2019년 10월 13-18일)에서 아일랜드, 짐바브웨와 함께 몽골을 Grey List에 포함시켰다.
- 몽골은 2004년 FATF의 아시아태평양기구(APG)에 가입하면서 동 기구의 감독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도 '그레이 리스트'로 포함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FATF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 투명성, 금융시장 감시 개선, 위법자에 대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몽골을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 몽골 전문가들은 그레이 리스트 편입으로 국가신용도 하락, 환율 상승, FDI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활용 여하에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 시스템과 법제를 갖추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 현재 몽골 정부는 금년 5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FATF 총회에서 그레이 리스트 졸업을 목표로 법제 정비와 아울러 정기 보고서 제출 등 지적 사항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난 연말 관련 법안이 몽골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장담하기도 어렵다.

참고자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8892>, 몽골 경제전문가, 투그리크貨 가치 지속 하락 전망(2019.11.18.)

<https://ikon.mn/n/1pbh>, Монгол Улс "Саарал жагсаалт"-д багтсан тухай мэдээллийг Монголбанк баталлаа(2019. 10. 19)

<https://ikon.mn/n/1s5f>, Ч.ХҮрэлбаатар: Монгол Улс Саарал жагсаалтад удаан байх нь бидэнд ашиггүй(2020.01.29.)

<http://olloo.mn/n/71114.html>, Саарал жагсаалтаас гарах төлөвлөгөө юу болов(2020.02.04)

4. 투그릭 가치 하락 지속됨

- 몽골국은 2017년 5월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했다. 즉 2016년도에 1%대이던 경제 성장률이 2017년 5.3%, 2018년 6.9%, 2019년 7.1%(추정치)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투그릭(MNT)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투르릭 대 달러 환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	1355.90	1265.50	1359.40	1525.72	1818.28	1970.66	2147.74	2440.63	2472.67	2,663.54

출처: 자료: 몽골통계청/www.1212.mn/

<2019년도 월별 투르릭 대 달러 환율>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율	2649.68	2633.37	2632.51	2634.93	2645.16	2654.47	2661.55	2670.54	2669.68	2678.01	2705.26	2727.34

출처: 자료: 몽골통계청/www.1212.mn/

-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2019년 10월 13-18일)에서 아일랜드, 짐바브웨와 함께 몽골을 Grey List에 포함시킨 후 투그릭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Fitch 등 신용평가기관들의 전망대로 2020년도에 들어서도 투그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2월 7일 현재 1달러 당 2753.97투그릭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 투르릭의 약세는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가계 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투그릭 약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달러 선호 등 몽골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https://news.mn/r/2246703/>. Н.Батжи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ууриа харвал ханшийн өсөлт ҮҮсэх нөхцөл байдал ажиглагдахгүй байна(2020.01.08.)



Гадаад өрийн эргэн төлөлт

Улсын секторын эргэн төлөлт* /сая USD/



	Бондын нэр	Санхүүжилтийн хэмжээ	Эргэн төлөх огноо
Засгийн газар	Мазаалай	500 сая USD	4/6/2021
	Чингис (10 жил)	1000 сая USD	12/5/2022
	Гэрэгэ	800 сая USD	5/1/2023
	Хуралдай	600 сая USD	3/9/2024
Төвбанк	ХАБ своп хэлцэл	12 тэрбум CNY	2020 онд

Хувийн секторын эргэн төлөлт** /сая USD/



	Бондын нэр	Санхүүжилтийн хэмжээ	Эргэн төлөх огноо
Хөгжлийн банк	Самурай	30 тэрбум JPY	12/25/2023
	DBM	500 сая USD	10/23/2023
Худалдаа хөгжлийн банк	TDB	500 сая USD	5/19/2020
Энержи Ресурс ХХК	ER	412 сая USD	5/4/2020
	Shine bond	440 сая USD	4/15/2024
МИК ХХК	МК bond	300 сая USD	1/29/2022

*https://www.mongolbank.mn/documents/press_conference/20190917_04.pdf,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өрий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2019.09.17)

참고자료

<https://news.zindaa.mn/2yig>, Монгол Улс 2020 онд тооцоолоогүй төлбөрт унах эрсдэл ҮҮсэв(2019.11.07.)

<https://www.facebook.com/2057829624465520/videos/2444698089192444/>, 2020 онд болох Онцлох Үйл явдлууд

6. 2019년도 몽골의 부패인식지수 13단계 후퇴하여 180개국 중 106위 기록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다. 근년 한국의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순위는 2016년 52위,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해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다.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몽골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35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0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도(36점, 180개국 중 93위)에 비하여 13단계나 후퇴한 결과다.
- 조사대상 180개국 중 2/3가 50점 미만의 적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들 국가의 평균 점수는 43점이다. 따라서 몽골의 경우 평균 이하의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부패가 여전히 국가 발전의 장애물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근년 몽골의 부패인식지수와 점수는 아래와 같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점수	38	39	39	38	36	37
순위	87/176	87/176	87/176	87/176	103/180	93/180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acrc&logNo=221782883897>, 한국,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30위권 진입(2020.01.23)

<https://www.youtube.com/watch?v=AlQa-0dqDvg>, Дефакто Тойм(20.01.26)

<https://ikon.mn/n/lrzd>, Монгол Улс авлигын индексээр 35 оноо авч 13 байр ухрав(2020. 01.23)

7. 주한국 몽골 대사 여전히 미공

- 1월 27일 몽골 정부는 바트톨가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모두 11개국 대사 후보자를 집권 인민당에 소개하고 의회 승인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민당 의원들은 이 중 두 명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 사람은 인도 대사 후보자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한 사람은 한국 대사 후보자로 외교관 경험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 주한국 몽골 대사는 전임자가 떠난 지 2년이 넘었다. 몽골 인문대학 올람바야르(D. Ulambayar) 교수의 지적처럼 5만 명에 가까운 몽골인이 상주하면서 일하고 배우고 노동하는, 따라서 몽골의 22번째 아이막(aimag, 道)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중요한 자리인 한국 주재 대사 자리를 이처럼 오래 비워두는 것은 양국 관계를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 주한국 몽골 대사가 이처럼 오래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대사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대통령(민주당), 총리(인민당), 의회(인민당 절대다수)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 대사 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 주재 대사가 공석으로 있다가 하나씩 채워지는 추세가 반복되었다.
- 주한국 몽골 대사의 경우 바트톨가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호르츠(B. Khurts) 전 정보부장을 2017년 11월 집권 인민당이 절대다수의 지지로 승인하고 한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했지만 한국 쪽에서 가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다. 그 후 현재에 이르도록 대리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news.mn/r/2252284/>, Шинээр томилогдох Элчин сайдуудын хэн нь хэн бэ?(2020.01.29.)

<https://news.mn/r/2255690/>, БАЙР СУУРЬ: Дипломат алба дампуурсан(2020.01.31.)

8. 6월 24일 총선

- 2020년 6월 24일은 민주화 이후 여덟 번째를 맞는 총선이 실시된다. 그리고 작년 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동이 제한된다.
- 이번 총선은 29개 선거구에서 총 76명을 뽑는 대선구제로 시행된다. 이 중 울란바타르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고, 지방은 20개 선거구에서 52명을 뽑는다. 이렇게 하여 울란바타르 의석수는 28명에서 24명으로 줄고 대신 지방 의석이 50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의석수 조정은 전통적으로 울란바타르에서 인기가 없는 현재의 집권당인 인민당의 선거 정책에 이루어진 것이다.
- 2016년 총선은 총 76석 중 인민당이 6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9석, 인민혁명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을 나눠가졌다. 인민당의 예상 밖의 압승이었지만 장기 경기 침체,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 선거직전의 선심성 정책결정, 게임 직전 규칙의 변경(선거법 개정) 등으로 인민당의 승리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 2016년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 향방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이번 선서를 통하여 집권당을 교체해야 할 이유를 찾자면 여럿을 들 수 있다. 우선 인민당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권력투쟁에 시간을 보냈다. 또한 국민들의 원성을 산 선거 전 매관매직 모의 사건(이른바 600만 투그릭 사건), 중소기업진흥기금 저리 대출사건을 유아무야 넘겨버렸으며, IMF의 지원으로 외형적 경제지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서민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인민당의 큰 약점이다. 그러나 바트톨가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관계가 말해주듯 제1야당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현 후렐수흐(U. Khurelsukh)가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울란바타르 대기 오염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야당의 승리를 점치기가 어렵다.

참고자료

<https://ikon.mn/opinion/1rmo>, МАН 2020 оны УИХ-ын сонгуульд ЯЛАХ ХҮСЭЛГҮЙ БАЙНА(2020.01.10)

<https://news.mn/r/2249177/>, МАН-ын байлдааны тактик(2020.01.15)

<https://www.medee.mn/p/144716>, ТОЙМ: УИХ-ын 2020 оны сонгуулийн ерөнхий зураг(2020.02.03)

<https://medee.mn/p/144852>, Б.Пүрэвдорж: Нэг зҮйл сануулъя, МАН Үеийн Үед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ос айдаг байсан(2020.02.06.)

9. 대기 오염 45% 감소

- 2020년 2월 6일 수도 비상계획처(NOBG) 발표에 따르면 울란바타르의 대기 오염은 작년과 비료하여 4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5월 이후 울란바타르로의 석탄 반입을 금지시킨 것과 개량 압축 연탄의 보급과 관련이 있다. 다만 개량 압축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중독자가 자주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튼 대기 질이 현저하게 좋아진 것은 지난 10여 동안 몽골국의 당면 과제의 하나였던 큰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집권 인민당에게는 6월 24일 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https://dnn.mn/>, Агаарын бохирдол 49.6 хувиар буурсан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на гэв (2020.0206)

<https://www.montsame.mn/mn/read/215170>, Агаарын бохирдол 45 хувиар буурчэ э(2020.0206)

<https://www.facebook.com/eaglenewssocial/videos/3355447377815312/>, Агаарын бохирдол 45 хувиар буурсан ч агаар дахь хортой бодисууд хҮлцэх хэмжээнээс их байна(2020.02.06)

10. 바트톨가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는가?

-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확정된 개정 헌법은 2020년 5월 25일 12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바트톨가 현 대통령은 2021년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개정 헌법 30조 2항의 대통령 관련 사항은 “대통령은 50세 이상으로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상주한 자, 임기는 6년으로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 때문에 대선 관련 사항은 2025년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개정 헌법안 모두 2020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 다음 선거를 생각했다면 애초 의회를 통과한 개정 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현재 몽골 법률가들과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바트톨가 대통령의 2021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싸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선다.

참고자료

<http://www.zaluucom.mn/read/44633eb2g>, Y.Амарбат: Х.Баттулга Ерөнхийлөгч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ьд нэр дэвших боломж нь нээлттэй хэвээр(2020.02.06.)

<https://news.mn/r/2258850/>, Ерөнхийлөгч Х.Баттулга дахин нэр дэвших боломжтой юу?(2020.02.07)